

민주당,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한마디로 웃기는 일”

“박근혜식 해경 해체” 떠오르는 극단적 발상 “듣기 싫은 질문 피하려면 팬미팅 했어야” “선택적 언론관 넘어 폐쇄적 국정운영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데 대해 일제히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의 언론관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썼다.

그는 “기자의 정당한 항의를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칭하는 지경에 이르면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관인지 블랙코미디를 기획하는 코미디팀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차라리 기획사를 하나 차리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가 있으니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박근혜식 해경 해체’가 떠오르는 극단적 발상. 우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언론의 집중공격에 맞서 외로이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판타지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에 글을 올려 “듣기 싫은 질문 피하고 싶으면 애초에 언론 문답이 아니라 ‘팬미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진짜 딱 막힌 대통령”이라며 “스스로 불통, 오만, 응징의 벽 안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만나서 첫 번째 국민인 기자들에게 이라는 걸 보니 진짜 국민에게도 곧 함부로 할 것”이라며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기려 하는 건 미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택적 언론관을 넘어 이제는 벽을 쌓고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폐쇄적 국정운영’의 선언”이라 평가했다.

조 의원은 “지금 윤 조선 시대나. 군부독재 시대나”며 “조선 시대에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는 언론 삼사를 두어 언론을 열어왔다.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나”고 지적했다.



당 미래부총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이 “윤 대통령의 무능을 언론이 두둔해주지 않아 화가 잔뜩 난 모양”이라며 “언론은 대통령 홍보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행실을 고쳐야 함이 마땅하다”고 썼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뻔한 수순이었다”며 “대통령실은 혹시 ‘오히려 좋아’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은 MBC를 악의적이라고

하려면 본인이 직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야당을 향해 ‘이XX’라고 욕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함은 둘째치더라도, 기억이 안 나다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월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의 언쟁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MBC의 ‘사적 발언’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데 대한 기자의 후속 질문을 놓고 대통령실 참모가 질문 태도를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어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을 하는 1층 출입구에는 나무판자로 짜인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최이슬 기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이장님들의 노고 보람으로 돌려 드리겠다” 강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최근 영암살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라남도 아·통장 한 마음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은 견인해 온 아·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1년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도민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그 바탕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아·통장 여러분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을 겪으면서 행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통장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면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홍준표, ‘도어스테핑 중단’에 “잘한 결정...대통령 말씀 태산같아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에 대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지만, 파이

“대통령이 매일 결론을 미리...적절치 못해” “대통령 뜻 알지만...마음줄이는 사람 많아” 대통령실, ‘국민 소통 취지’ 강조 잠정 중단

널 디시전(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마음 줄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0월22일 “검사들에게는 이른바 ‘곤조’라는 게 있는데, 검사의 ‘곤조’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며 “정치는 증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관”이라고 적었다.

당시 선배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이 윤석열 대

통령에게 전한 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홍 시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시장은 이날 도어스테핑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보였는데, 대통령실은 이날 중단을 발표하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입장차가 다소 있다.

윤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